

음성질환에 대한 약물요법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홍 기 환

1. 서 론

음성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은 대부분 후두에 영향을 주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약물 자체의 작용에 의한 부작용은 음성의 전문적인 사용자나 예민한 사람에게는 약물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의해 오히려 음성의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여야 한다. 본 연제에서는 음성질환 특히 전문적인 음성 사용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논의하므로써 음성질환의 약물요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항생제(Antibiotics)

일반적으로 적절한 균 배양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가 바람직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전문적인 음성 사용자에서는 혈중 치료 농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고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균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항생제를 먼저 시행하여 일으킬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주사가 빠르게 적정혈중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더 도움이 된다.

3.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s)

알레르기에 사용되는 모든 항히스타민제는 음성관을 건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교감신경 흥분제나 부교감 신경제와 함께 병용하여 사용할 경우 점액분비를 더욱 저하시키며 진하게 만들 수 있고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일반 판매되는 항히스타민제들은 대부분은 acetylcholine 길항제로서 분비물의 점도 증가와 관련이 있다. 또한 지각신경 기능을 저하시키고 진정 효과가 있어 특히 전문적인 공연자 일 경우 공연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공연 직전에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에서는 경구 스테로이드나 스테로이드 주사가 특별한 부작용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점액용해제(Mucolytic and wetting agents)

점액용해제나 거담제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물의 작용에 반할 수 있으며 점막 탈수를 보다 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으며 비교적 무해하며 진한 분비물과 잦은 목 청소(Frequent throat clearing), 후비루(Postnasal drip)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기관지 하부의 점막이상으로 점액의 분비가 늘게 되면 헛기침을 자꾸 유발하여 성대 점막에 부종을 유발시켜 음성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점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점액용해제의 사용이 도움이 된다.

5. 이뇨제(Diuretics)

염증이 나타나는 성대의 부종증은 단백질과 결합한 수분(Bound water)의 형태로서 이뇨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환자를 탈수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성대부종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생리와 관련된 성대 증상에서 이뇨제의 사용은 금기이다. 물리적인 외상도 성대 점막 부종의 흔한 원인으로 이러한 경우는 전신적인 또는 국소적인 충혈완화제들이 사용되는데, 부작용으로는 반동현상(rebound phenomena)을 일으키므로 장기사용을 피해야 한다.

6. 스테로이드제(Corticosteroids)

스테로이드제는 항염증작용 외에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단시간 동안의 고용량 사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 자제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역시 주의해야 한다. 급성으로 음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 단기간 사용했을 경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흔하지 않지만 장기 사용시 위 점막의 자극, 궤양, 출혈, 불면증, 경한 점막 건조, 시력 흐림, 정신병 그리고 흥분성도 생길 수 있다.

7. 흡입 분무제(Sprays and inhalants)

Diphenhydramine hydrochloride나 Oxymetazoline hydrochloride 등은 혈관수축성에 도움이 되어 심한 부종을 진

정시킨다. 그러나 이는 응급이나 급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분무기나 증기 생성기를 이용한 물, 식염수 등은 대개 효과적이며 충분한 치료이다. 스테로이드 비강분무는 음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구강 흡입기는 흡입제에 사용되는 추진제(압축 불활성가스, Propellant)가 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고, 과민반응으로 인한 접촉성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스테로이드 흡입제의 지속적인 사용은 칸디다균 후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성대 점막의 염증 반응과 성대 근육(Vocalis muscle)의 위축이 유발될 수 있다.

8. 진해제(Antitussive medications)

Codeine과 Dextromethorphan 같은 기침 억제 약물은 상기도를 건조시키는 이차적인 효과가 있다.

9. 항고혈압제(Antihypertensive agents)

거의 모든 항고혈압제들은 부교감신경 흥분작용에 의해 상부 호흡기관의 점막을 건조시킨다. 이들은 대개 이뇨제와 병행하여 투여되기 때문에 점막의 탈수를 조장한다.

10. 진통제(Analgesics)

대부분의 진통제는 음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특히 Aspirin은 혈소판의 기능이상으로 성대 외상 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성악가와 같은 직업적 음성 사용자들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도 혈액 응고 체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Acetaminophen 등으로 대체 사용을 요한다. 통증은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보호 작용이므로 진통제의 사용으로 성대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상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지각신경에 심한 영향을 줌으로 공연을 방해하거나 기술적인 남용으로 인해 성대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11. 수면제(Sleeping pills)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수면제는 불필요한 약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반작용으로 생기는 불면증(Rebound insomnia)과 신체 방어 등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사용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Diphenhydramine계의 항히스타민제 사용은 점막 건조의 부작용 때문에 수면 유도의 목적으로는 피해야 할 것이다.

12. 호르몬제(Hormones)

호르몬제는 구조적 또는 수분 함량의 변화를 일으켜 음질에 변화를 줄 수 있다. Androgen의 사용은 기본 주파수의 영구적인 저하와 음성의 거칠어짐을 초래 할 수 있다. Progesterone의 함량이 높은 경구 피임제의 경우 androgen에 의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일시적이고 가역적으로서 경구 피임약의 사용이 중단되면 음성의 변화는 되 돌아온다. Estrogen의 보충은 폐경 이후 나타나는 음성 변화를 어느 정도 지연시켜 줄 수 있다. 폐경이 되었을 때 적절한 의학적 감시 하에 직업적 음성 사용자들에게는 권장되어 지고 있다. 경도의 갑상선기능 저하증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의 대체가 권장된다.

13. 기관지활성 약물(Bronchoactive medications)

천식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기관지 확장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Inhaled bronchodilator)는 후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임상적으로 천식 치료제로서 쓰이는 많은 흡입용 약물 중에서도 Cromolyn sodium은 문제가 적은 약제이다. 그러나 Epinephrine이나 Aminophylline(Xanthine)계가 포함된 흡입제들은 성대에 건조현상과 염증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REFERENCES

- 1) Sataloff RT. *Vocal art medicine. The care and prevention of professional voice disorders.* Benninger MS, Jacobson BH (eds). New York, Theime Medical Publishers, Inc;1994.
- 2) Sataloff RT. *Professional voice. The science and art of clinical care.* San Diego,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1997.